

“비엔날레 국제타운 현실성 있게 재추진 해야”

박양우 광주비엔날레 재단 대표 퇴임

경쟁력 위해 비엔날레 종합관 꼭 필요
일몰제 잦아들 일몰제 적용은 잘못된 정책
문화전당서 행사 개최 예산 확보 차원
성과급제 도입·조직 안정화 성과

“광주비엔날레가 국제적 명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전시·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칠 수 있는 종합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향후에도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평소에도 북적이는 비엔날레 전시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임기를 1년 앞두고 지난 31일 조기 퇴임한 박양우(59) 전 광주비엔날레재단 대표이사는 종합관 설립이 무산된 점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대표이사에 취임할 당시 직원들에게 비엔날레전시관을 활성화시켜 보자고 강조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2년에 한번 열리는 전시 뿐 아니라 평소에도 교육 등 각종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최우선 과제였다”고 말했다.

비엔날레재단은 광주시가 추진한 비엔날레 국제타운 조성 사업에 종합관 설립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2023년까지 국비·시비·민간자본 등 예산 1175억원을 투입해 중외공원 일대에 비엔날레자료관, 파빌리온 형태의 국가관, 음악당, 공방촌 등을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며 좌초 위기에 빠졌다.

박 전 대표는 “광주시가 수립한 사업계획은 너무 광범위한 측면이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국가관 등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베니스 비엔날레의 경우 권위가 있어 각 나라에서 자체 예산으로 국가관을 조성하지만 광주의 경우 우리 예산으로 만들어 줘야죠. 굳이 베니스 비엔날레를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 때라도 비엔날레전시관을 방문하면 볼거리를 제공하는 아이카브란, 종합관 등을 집중 추진해야한다는 이야기다. 또한 베니스비엔날레재단처럼 광주비엔날레



박양우 전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가 퇴임 소감을 말하고 있다.

단도 전시·공연·건축·영화제 등을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재단 전시부가 주최한 전시, 주변 간판 작업을 추진하지 못한 점도 아쉽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정부가 광주비엔날레를 일몰제(2008년부터 진행한 7회 이상 국제행사는 지원 대상 제외) 대상에 포함시킨 점에 대해 “잘못된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다큐 ‘다이빙벨’ 상영 논란이 일었던 부산국제영화제, 부산비엔날레와 함께 열렸던 ‘세월호’ 파행을 겪었던 광주비엔날레에 대한 보복성 성격이 강하다는 의미다.

박 전 대표는 “모든 행사에 똑같은 잣대를 적용한 점을 잘못됐고 문광부 내부에서도 비판이 있었다”며 “일몰제는 새정부가 들어서면 폐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관련해 2018 광주비엔날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개최 추진은 국제적 위상 향상·예산 확보 등 두가지 포석이었다는 설명이다.

“지금까지 비엔날레는 광주시를 통해 정부 예산(30억 원)을 받는 형식이었습니다. 문화전당에서 열리면 문광부 예산이 직접 투입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일몰제가 적용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정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박 전 대표는 ‘2014 광주비엔날레’가 ‘세월호’ 사태로 파행을 겪은 후 2015년 3월 선임됐다. 지난 2년간 2016년 행사 성공 개최와 더불어 조직 안정화가 임무였다.

“국제적 명성을 높이고 지역과 함께하며 내부 역량 향상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방향은 구축했다고 생각합니다. 취임 후 첫번째 한 일이 직원 업무량 파악이었습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면 성과급에 차등을 주는 제도를 도입했죠. 비영리단체이지만 경쟁시스템 도입은 의미가 있습니다. 또 상근이사장과 대표이사를 동시에 두도록 한 이사회 정관은 지난해부터 정관 소위원회가 동시 개최 개정 준비를 했습니다.”

지역에서는 박 전 대표 조기 퇴임에 따른 2018 비엔날레 준비에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 전 대표는 “비엔날레재단은 광주시 산하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청문회 등이 필요없어 다음 대표이사 선임이 신속히 이뤄질 것”이라며 “다만 3월 중 예정된 예술감독 선임은 약 1~2주 정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표이사는 CEO이긴 하지만 총괄프로듀서 역할도 있습니다. 직접 예술감독을 뽑지는 않더라도 뚜렷한 철학을 가지고 전시 방향을 이끌어야 하죠. 다음 대표이사가 예술감독 선정에 참여하고 전시를 준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급적 인이하게 대처하지 말고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끝으로 그는 “졸가분 하면서도 2016 행사를 잘 치르도록 도와준 지역민과 미술계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는 대학 교수로서 칼럼도 활발히 쓰고 연구 활동에 치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레

지난 2008년 10월12일 ‘보화각(간송미술관 전신) 설립 70주년 기념 서화대전’(서화대전)이 개막한 간송미술관 주변은 관람객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전시 폐막일에는 입장순서를 기다리는 행렬이 2km에 달해 미술관 문턱을 밟는 데만 7시간이나 걸렸다.

관람객들이 ‘서화대전’을 찾은 가장 큰 이유는 조선시대 화가 신윤복의 ‘미인도’와 김홍도 그림을 보기 위해서였다. 약 2주간 열린 전시회에 국보 59점, 보물 79점 등 평소 접하기 힘든 진귀한 작품들이 선보인 것이다.

사실 간송미술관은 문턱이 높은

식을 제결한 것이다. 미술관 건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대구시가 지원하고 컬렉션과 콘텐츠는 간송미술관이 맡는다는 조건이다. 대구시는 현 대구시립미술관 인근에 수장고, 전시·교육공간, 편의시설을 두루 갖춘 간송미술관 분관을 오는 2021년 완공해 한국을 대표하는 미술관으로 키운다는 전략이다.

대구가 간송미술관을 유치할 수 있었던 데에는 3년 전부터 간송측과의 긴밀한 접촉, 지역출신 국회의원 등의 물밑작업이 큰 힘이 됐다. 여기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간송미술관 유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온 대구시의 공도 빼놓

간송미술관 in 대구

곳으로 유명하다. 고미술 보전을 명분으로 상설전시장을 열지 않고 매년 5월과 10월 두 차례만 소장품을 일반인에게 개방하기 때문이다. 그림에도, 간송미술관은 미술애호가들 사이에 ‘한번쯤 꼭 가봐야 할 곳’으로 꼽힌다.

그도 그럴 것이 간송미술관은 국보 12점, 보물 8점 등 유물 5000여 점을 보유한 고미술의 보고(寶庫)이다. 교육가이자 문화재 수집가로 평생 민족 문화재를 모은 간송 전형필(1906~1962)의 컬렉션을 바탕으로 1938년에 건립됐다. 소장품 가운데에는 훈민정음 해례본(국보 제70호), 고려청자, 신윤복, 김홍도, 장승업 등 조선시대 화가의 미술품도 포함돼 있다. 간송의 컬렉션에 주목한 지자체들은 미술관 분관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다.

요즘 대구 문화계가 축제분위기로 한껏 들떠 있다. 지난해 12월 부산, 인천, 제주, 세종 등 경쟁한 도시들을 따돌리고 간송문화재단과 미술관 분관을 건립하기 위한 협약

을 수 없다.

최근 광주시가 제19대 대통령선거 공약(안)으로 5개 분야 28개 사업을 잠정 선정하고 여론수렴 작업에 착수했다. 광주시가 발표한 문화관련 대선공약 가운데에는 수년째 말만 무성한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500억 원)도 들어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구색 맞추기용으로 끼워넣은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현 광주시의 역량으로는 유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21세기 미술관은 단순히 작품을 전시하거나 보관하는 물리적 공간이 아니다. 시민들의 문화향유는 물론 차별화된 콘텐츠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도시의 브랜드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유치가 공약(公約)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선 그 어느 때 보다 광주시의 정치력과 비전이 필요하다. 우물쭈물하다간 머지 않아 ‘미술의 도시’라는 타이틀이 공허하게 들릴지 모른다.

〈편집부국장·문화선임기자〉

복을 부르는 입춘방

광주시립민속박물관, 4일 서예가 4인 참여 나눔 행사

광주시립민속박물관이 4일 ‘복을 부르는 입춘방 나눔’ 행사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연다.

우리 선조들은 24절기 첫 마디인 입춘(立春·4일)을 맞아 대문과 집안 기둥에 좋은 글귀를 써서 붙이며 가정의 무사태평과 풍년을 기원했다. 이를 입춘방(立春榜)이라고 부르며 춘축(春祝), 입춘축(立春祝), 입춘첩(立春帖), 춘첩(春帖) 등 다양하게 붙였다. 입춘방의 대표적인 글귀는 ‘입춘대길 건양다경’(立春大吉 建陽多慶), ‘국태민안 가급인족’(國泰民安 家給人足), ‘개문만복래 소지황금출’ 등이다. 벽사(避

邪)와 풍년에 대한 염원, 새해를 시작하는 설렘과 기대를 담고 있다.

민속박물관은 로비에서 시민들에게 입춘방을 써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지립 이점숙, 혜송 이옥란, 해천 배인순, 지산 이기숙 선생 등 지역 서예가 4인이 참여한다. 시민들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문구를 선택해 현장에서 입춘방을 받아갈 수 있다.

또한 광주시청 광주시의회를 비롯해 각급 행정·문화기관 100여 곳 입구에도 입춘방을 게재할 예정이다. 문의 062-613-5362.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화순읍 교리에 70석 규모 작은 영화관 들어선다

화순군(군수 구충곤)에 작은 영화관이 들어선다. 군은 10억원(국비 5억, 도비 1억 5000만원, 군비 3억 5000만원)을 들여 화순읍 교리 구한 전 옥상에 70석 규모의 최신 영화 개봉관을 오픈한다.

이에 따라 2월부터 5월까지 시설계를 거쳐 6월부터 11월까지 영화관 건립 공사를 마친 뒤 오는 12월 개관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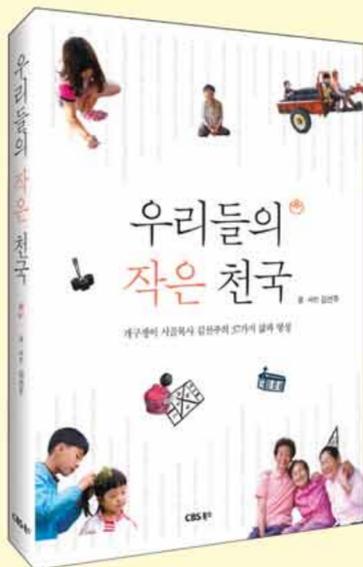
군은 영화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공모를 거쳐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화순에 영화관이 개관되면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 등 농촌 주민들이 저렴하게 최신 개봉 영화를 관람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소외된 문화적 박탈감도 해소하고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화순=나성중기자 nsj@kwangju.co.kr

시골목사 김선주의 따뜻하고 아름다운 제안!

세속에 물든 사람들, 타락한 도시, 위기의 교회를 향해 띄우는 37가지 주옥같은 삶과 영성의 메시지



‘한국교회의 일곱 가지 죄악’을 펴낸 뒤 스스로 찾아간 두메산골 교회 8년의 세월 동안 기도와 침묵 가운데 써내려간 위로와 치유의 이야기

지난 봄 손녀딸이 열 손가락에 봉숭아물을 들어 준 게 아직도 색이 바래지 않고 곱게 남아 있습니다.

“권사님, 이거 영감님 꼬실라고 이렇게 이쁘게 물들인 거 아니냐? 찻을 올 때까지 봉숭아물이 안 빠지면 찻사랑이 이루어진다는다……”
승합차에 타고 있는 교인들이 갑자기 배품을 쏟아내며 들쭉거립니다. _ 본문 25쪽에서

우리들의 작은 천국

4·6변형판 | 272쪽 | 글·사진 김선주 | 값 13,000원 CBS 북스

